

내년 국비확보 ‘의기투합’ ... 지역 현안 탄력

광주시·대구시, 광주·대구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

양 지역 어려움 해소 협력 ... 국회 차원 연대 강화해야

광주시와 대구시, 광주·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8일 내년도 국비확보에 ‘의기투합’하면서 양 지역의 현안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지역 국회의원들이 상대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와 대구의 현안사업 국비 확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과 관련한 예산 공조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 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의 함께 국회 해결위원들을 만나 양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를 요청하

는 등 광역단체장 간 ‘예산 공조’를 했다. 이어 올해는 양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힘을 합치기로 하면서 내년 국비 확보에 더욱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광주·대구지역 예산·정책간담회’는 1시간 50여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광주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국민의당 김동철·장병완·권은희·송기석·김경진·최경환 의원이 대구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유승민·정종섭·조원진·곽상도·곽대훈·추경호·윤재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투자진흥지구지원시설 구축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수소충전소 부품 인증기반구축 및 국제표준화 사업 ▲자동차에프터마켓부품 시험인증센터 구축 등 총 20건의 핵심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윤장현 시장은 “광주와 대구는 5·18민주화운동, 2·28민주운동 등 대한민국의 위기 때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공통의 경험이 있다”면서 “두 도시가 기존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매우 놀라운 변화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은 “그동안 달빛동맹이 자치단체 간 동맹이었다면 이제는 국회 차원의 연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대구현안은 광주지역 의원들에게, 광주현안은 대구지역 의원들

에게 잘 설명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 실제 성과가 나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윤재욱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은 “그동안 통합을 지향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 자리가 지역감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양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라 생각한다”면서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재의 상황을 달빛동맹으로 해소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광주·대구 예산정책간담회에 이어 이날 중 새누리당과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9일 국회가 열리기 전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김영란법 식사·선물비 5·10만원으로 올려야”

국민의당 농어촌 국회의원 촉구

국민의당 소속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식사비(3만원)와 선물비(5만원)를 5만원,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윤영일(해남·완도·진도), 정인화(광양·곡성·구례),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박준영(영암·무안·신안), 유성엽(정읍·고창)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상황, 특히 농어업 현실을 생각할 때 국민권익위에서 만든 시행령 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행 시행령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한도 중에서 음식물과 선물의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김영란법은 물론이거니와 시행령까지도 일단 시행해놓고 경과를 지켜보자며 마치 이것이 당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일부 의원들도 있지만, 이는 그분들의 사견일 뿐 당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선업 구조조정 4자 협의체 만들자”

野 ‘조선산업 안전 모임’ 촉구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모임’은 8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회·정부·회사·노동자간 ‘4자 협의체’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채이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구조조정안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제언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에서는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체불에 부당한 전보·해고까지 이뤄져 노동자들만 벼랑 끝에 내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경영을 한 지배주주와 경영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이를 방치한 국정은행,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 당국이 바로 조선산업의 위기를 만든 장본인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선(先)청문회 후(後) 추경 통과”라면서, 이른바 ‘사법관 회의 청문회’로 불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야당 소속 의원 100여 명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 부실화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손에 손잡고 ... 영호남 예산공조 8일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광주·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정책 간담회’에 앞서 두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송기석·곽상도·곽대훈·권은희·유승민·최경환·윤재욱 의원, 윤시장, 권 시장, 장병완·김부겸·김동철·조원진·추경호·정종섭·김경진 의원. <광주시 제공>

광주시, 대규모 中 관광객 유치계획 ‘빠격’

교통편·면세점 등 인프라 한계에 사드까지

10월 국정질 유커도 ‘그림의 떡’ 될 가능성

광주시의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 유치계획이 뼈격거리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관광 인프라의 한계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이 커지고 있어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중국 현지 여행사 7곳, (사)한중청년리더협회 등과 관광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등이 주선해 이뤄진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은 올해 하반기 1만 명, 내년부터 연간 2만명의 관광객 유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 여행사들은 현지 관광객 모집 등 절차에 들어갔지만, 협약에 따른 관광객 예약이나 방문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는 등 관광객 유치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교통편과 면세점 등 관광인프라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편의 경우 무안공항에서 중국 항공 노선은 하루 1편에 불과하고, 카페리 항로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단체 관광객을 위해 무안공항에 전세기를 띄우는 방

안이 검토되지만, 중국 관광객들은 면세점이 활성화된 서울, 인천을 경유해 귀국하기를 위해 일정을 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박주선 의원 측은 전했다.

또한, 인천공항을 거치려면 광주에서 또는 광주까지 자동차로 4시간 가까이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오는 10월 중국 국정질 연휴에 한국을 찾을 유커들도 광주시에는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시기상 이미 예약이 이뤄져야 하지만 단체 예약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경색된 것도 악영향의 한 요인이다.

교통, 숙박, 관광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노인, 청소년 등 특정 대상을 겨냥한 교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시는 한중 노인 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지난 상반기 11차례에 걸쳐 2000여명의 중국 노인 관광객을 유치했다. 빗고을 노인건강타운을 중심으로 한 노인교류 상품 개발이 비결이었다.

광주컨벤션뷰로와 광주시는 해외청소년 교류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7~8월 3000여명의 중국 청소년 교육관광객을 유치했다. 지난달 27~28일에는 중국 2000명이 참석해 한중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행사도 열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광 인프라가 넉넉하지 않은 데다 사드 등 대외적인 문제도 있어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중국 광저우(廣州)와 자매결연 20주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등 호재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 관광객 유인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고령 책무수행 어려워져” ... 200년만에 조기퇴위 추진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생전퇴위 의향을 반영한 메시지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17년 이후 약 200년 만에 일왕의 조기 퇴위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키히토 일왕은 일본 공내청 홈페이지와 NHK 등 주요 방송사를 통해 이날 공개된 동영상에서 “차츰 진행되는 신체의 쇠약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 상징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왕은 자신이 수년 전에 두 번의 큰 수술을 받았고 이미 80세가 넘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종래처럼 무거운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어떻게 처신할지를 생각해 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헌법에 따라 정치적 권한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왕실규범’ 개정을 직접 촉구하는 것

로 비칠 수 있는 ‘퇴위’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키히토 일왕의 메시지에 대해 “국민을 향해 발언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일왕의 연령이나 공무의 부담 “어떤 것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아키히토 일왕의 메시지에 따라 생전퇴위를 포함한 왕위 계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왕이 살아 있는 동안 물려난 것은 에도(江戸)시대 후반기인 1817년 고가쿠(光格) 일왕(1780~1817년 재위)이 마지막이었다. 아키히토 일왕이 왕위를 양위하면 약 200년 만에 생전퇴위가 이뤄지게 된다.

연합뉴스



2016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 시 접수

2016. 8. 8(월) ~ 18(목)

전 열 일 시

2016. 8. 22(월) 오후 2:00

합격자 발표

2016. 8. 24(수) 오전 10:00 예정

등록금 납부

2016. 8. 24(수) ~ 25(목)

▶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과정 (수업연한)	학 과	모집 정원
일반대학원	석사(4학기)	신학과(Th.M.)	0
		유아교육학과(M.Ed.)	0
신학대학원	석사(6학기)	신학과(M.Div.)	0
음악대학원	석사(4학기)	실용음악학과(M.A.)	0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지원 자격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단,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2학년 0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및 30학점 이상 취득자
- 3학년 0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및 60학점 이상 취득자

입학문의 ▶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507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 시 접수

2016. 8. 8(월) ~ 18(목)

전 열 일 시

2016. 8. 22(월) 오후 2:00

합격자 발표

2016. 8. 24(수) 오전 10:00 예정

등록금 납부

2016. 8. 24(수) ~ 25(목)

▶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과정 (수업연한)	학 과	모집 정원
일반대학원	석사(4학기)	신학과(Th.M.)	0
		유아교육학과(M.Ed.)	0
신학대학원	석사(6학기)	신학과(M.Div.)	0
음악대학원	석사(4학기)	실용음악학과(M.A.)	0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지원 자격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단,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2학년 0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및 30학점 이상 취득자
- 3학년 0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및 60학점 이상 취득자

입학문의 ▶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507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 시 접수

2016. 8. 8(월) ~ 18(목)

전 열 일 시

2016. 8. 22(월) 오후 2:00

합격자 발표

2016. 8. 24(수) 오전 10:00 예정

등록금 납부

2016. 8. 24(수) ~ 25(목)

▶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과정 (수업연한)	학 과	모집 정원
일반대학원	석사(4학기)	신학과(Th.M.)	0
		유아교육학과(M.Ed.)	0
신학대학원	석사(6학기)	신학과(M.Div.)	0
음악대학원	석사(4학기)	실용음악학과(M.A.)	0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지원 자격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단,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2학년 0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및 30학점 이상 취득자
- 3학년 0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및 60학점 이상 취득자

입학문의 ▶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청(靑)소년
에비전문가 를 위한

다같이 · 多
즐겁게 · 樂
모이자 · 房

교육일시

▶ 오픈강의(1회) : 2016년 9월 24일(토) 14:00 ~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2016년 10월 8일(토) ~ 10월 29(토)
매주 토요일 14:00~

장 소

광신대학교 국제관 1층 국제회의실

수 강 료

무료

신청문의

▶ 오픈강의(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학생상담센터 062)605-0903
E-mail : flyhig132@naver.com

※ 2016. 9. 8(목)까지(신청기한임수)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평생교육원 062)605-1112, 1063

강의일정

▶ 오픈강의 : 2016. 9. 24(토) 14:00 ~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보건복지부 · 중앙자살예방센터(3시간) 수료증 발급

▶ 청다락방

회기	일 정	주 제	강사
1	10월 8일	청소년정서코칭	조영미
2	10월 15일	청소년은 꿈쟁이! & 오희이!	안창현
3	10월 22일	청소년 게임 놀이치료	임은경
4	10월 29일	미술치료의 실제	이정은

▶ 주 최 : 광신대학교 상담치료대학원 청소년상담지도학과

▶ 주 관 :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